

類機能理論의 思惟背景에 對한 一般的 考察¹⁾

- 類比論을 中心으로 -

池 圭 銘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I. 도 입

지난 70년대 초 닉슨의 중국방문으로 침술붐이 조성된 이래 꾸준한 성장과 저변확대를 보여온 한의학이 지금 제도적 변화와 연구소 설치 및 대통령의 동양의학국제협력기금 조성지사와 맞물려 제2의 중흥기를 맞고 있는 듯하다. 현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국제화와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한의학도 국내외적으로 폭넓은 생존전략과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한국의학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제고시켜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요즈음 각 분과학회를 중심으로 중국과의 交流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발전적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적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의 내용과 실체에 대한 자아인식이 부각되고 학문의 보급과 교육 및 연구향상의 全側面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理論研磨가 요구되고 있다. 즉 변화된 시대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세련된 이론체계를 통하여 세계와 질병에 대한 해석에 있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음

양요행론에 대하여 한국의 언어로 기술해야만 최소한 교육상의 이질감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면의 노력이 과거 7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윤길영 교수와 김완희 교수 두 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구조역학적 생리학에 이은 유기능이론이 그것인데 현재 오종기능계통을 이루고 있는 각 기관과 조직에 대하여 서의해부학과 발생학, 생리학적 지식을 원용하여 유기능적 해석과 설명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²⁾. 이 유기능 이론체계는 몇가지의 착안점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약간의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유기능 이론의 착안점으로는 첫째 자연과학이론³⁾과 현대의학적 성과에 의해 학술내용을 보정하고 확립했다는 의사학적 의의와, 둘째로 과학적 상식에 기초한 한의학 이론의 재구축⁴⁾이라는 시대적 의의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론 구성 과정에서 이질적 학문체계인 양의학이론을 도입하여 예증을 들어 논리구성 방법상의 모순을 범하였고 구조와 기능의 상관성을 강조하면서도 기능에 치중하여

1) 제4회 현국상, <일반부> 장려상 (1994. 7. 8)

2) 『장부생리학』, 참고.

3) 『東洋醫學原理論』, 參考.

4) 『東醫生理學』, 『六氣論』, 참고.

기능주의적 인상이 짙으며 핵심개념인 '類'의 개념정의가 부족하고 임상 제이론들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미비하여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점들이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의학으로서의 위상을 찾고 자긍심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일찍부터 있어왔다는 사실이며 그것은 곧 음양오행론이 설명하는 제측면에 대하여 한국적 해석의 독자적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저자는 이러한 학문적 노력이 정체되지 않고 더욱 奮發向上되기를 待望하는 의미에서 이 글을 준비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유기능이론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론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유기론에 대해 논리적으로 검토한 다음 시간과 공간에 대해 분석하고 구조와 기능의 문제, 對象觀察의 원칙, 생명현상의 일반화등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저자가 생각하는 類器能理論을 例示하는 水準에서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한의학에 대한 내용들, 예컨대 한의학에서의 시공간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교재들이 설명하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은 지리한 나열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였지만, 그 내용은 모두 전제되어 있다는 토대에서 저자의 입장만을 부각시킨 것이므로 미리 지적해 둔다.

II. 본 론

(1) 연관된 이론의 소개

1) 전식론(全息論)

전식론이란 중국의 張穎清씨가 1973년에

제2장골측의 전식혈위군을 발견하고 생물 전식요법이라 명명한 뒤 점차 체계화된 전식배학설을 가리킨다. 張에 의하면 제2중수골 骨節의 원위단에서 근위단까지 분포하고 있는 신혈들이 整體上의 머리에서 발까지의 대응하는 기관 또는 부위의 분포형식과 같으며 순서대로 頭穴、頸、上肢、肺心、肝、胃、十二指腸、腎、腰、下肢、腿、足穴이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 나아가 정체상의 각 부위를 무수하게 세분할 수 있는 것처럼 제2중수골절도 이에 따라 무수한 혈위로 세분할 수 있는데 이를 바꾸어 말하면 脊柱 전체를 포괄하는 小整體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2중수골절 내에는 정체 각부위의 생리병리적 信息(情報)을 축소형태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제2중수골의 혈위를 전식혈위군이라 한다. 이처럼 생체내에서 상대적으로 독립된 부분을 전식배라 하는데 전식배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주위 부분과 비교적 명확한 경계를 가지며 전식배 내부적으로도 구조기능상 상대적 完整性을 가진다. 전식배는 과거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구조기능상의 통일적 단위로 두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데 하나는 새로운 정체를 향하여 自主적으로 발육해 나가는 전식배 자신에 속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체에 속한 것이다. 즉 전식배는 정체의 제어를 받는 구조단위일 뿐만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발육단위이므로 세포에서 정체에 이르는 일련의 발육시간축상에 존재하는 각 단계의 胚胎를 모두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때 전식배의 발육단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식배의 한 부위와 정체대응부위간의 생물학적 상사도가 더욱 크다⁵⁾. 따라서 이러

5) 장영정. 『生物全息療法』, pp.1-7, 31

한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골절과 귀, 혀, 코 등의 전식배로서 대응하는 정체 각 부위와 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 원리를 임상에 응용한 것이 혈위전식요법이며⁶⁾ 그 기초개념인 전식배에 관한 이론이 전식배학설이다.

이 전식배학설은 발생학적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기능이론과 매우 유사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발생학적 지식만을 다루고 있는데 반해 유기능이론은 원용한 자료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상호간에 통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五系機能說

이것은 『동양의학강좌』 시리즈를 낸 바 있는 일본의 小林三剛이 동양의학의 병리부분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용어이다. 그렇지만 용어 자체에 대해 직접적인 개념규정이나 정의를 달지는 않았으며 단지 사용하는 문맥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

그는 병인편에서 간계기능장애에 의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① 간장의 질병 ② 담의 질병 ③ 眼의 질병 ④ 신경 ⑤ 筋腱 ⑥ 피부의 질병 등을 들고 심계기능 장애의 경우에는 ① 심장 ② 소장 ③ 舌 ④ 혈액순환과 관련한 질병 ⑤ 상지의 질병 등을 들고 있는데 비계, 폐계, 신계병 등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하다. 따라서 이러한 용법은 유기능 이론과는 同異點이 있음을 알게 된다. 먼저 같은 점으로는 양자 모두 오장을 중심으로 한 인체의 각 조직기관들의 계열적 기능을 설명하고 있음을 들 수 있고 다른 점으로는 소림이 오계기

능이라 하여 오계 각각의 오행적 소속기관들의 기능 각각을 다루었다면 김은 오종기능계라 하여 귀속되는 조직기관의 속성이 오장기능에 의하여 유추확정되고 이에 따라 연계되는 계열기관들의 기능과 구조를 생리학적으로 논술하였음을 들 수 있다. 또한 小林은 易學 또는 命理學을 연구했던 바탕에서, 한의학을 접근하기에 數理上 가장 용이한 오행장기를 주요대상으로 하고 그와 수평적 관계에 있는 조직기관들의 병증을 하나로 묶어 논했던 것이며 金은 한의학에서 출발하여 精神氣血의 物質的 四元構成要素를 바탕으로 六氣로 규정되는 외부적 자극에 대하여 적응동화할 수 있는 오종의 대표적인 기능기구로서 오장을 설정하고 오장의 대표특성을 중심으로 그에 융합하는 각 차원의 조직기관들을 계열별로 分類歸屬시켰던 것이니 오계기능과 오장기능계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2) ‘類’개념과 類比論의 探討

1) ‘類’개념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논리학적 의의

類는 중국 고대 諸子들의 書에서 자주 사용되던 개념으로 고대 논리학의 중요한 범주이며 ‘정명’, ‘입사’, ‘추리’에 관한 기본 개념이다. 夏의 시대에는 『尙書』 「堯典」에 “肆類上帝 禋于六宗”이라 한 것처럼 祭名으로 쓰이다가 의미가 점차 변하여 『國語』 「周語」에서는 “言行不類 始終相悖”라 하여 善하다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춘추시대에는 ‘族類’ ‘物類’ 등의 무리라는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었고 春秋末에는 鄧析이 “勳之于

6) 이를 동물과 식물에 확대 적용한 것이 생물전식론이다.

其類"라 한 것처럼 이미 사물 관찰시 '類聚'와 '群分'의 보편성에 주목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다만 아직 논리적 범주에 포함되어 파악되지는 않았으며 類의 각도에서 각각적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比類推理하였을 뿐이다. 그 후 孔子가 『論語』「學而」에서 "告諸往而知來者"라 하고, 『論語』「述而」에서 "舉一隅不以三隅反"이라 하여 이미 유추를 求知하기 위한 중요한 사유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대의 墨子是 '類'에 더욱 많은 논리적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는 『墨子』「非攻」에서 "子未察吾言之類 未明其故也"라 하고, 『墨子』「公輸」에서 "義不殺少而殺衆 不可謂知類也"라 하여 '類'를 사물을 분석하기 위한 근거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類(外延)와 故(理由)를 연계함으로써 '立辭'와 '辨說'의 기본원칙으로 파악한다. 孟子는 類의 성질에 대해 『孟子』「告子」에서 "凡同類者 舉相似也"라 하여 더욱 명확한 언급을 한 동시에 '知類'의 논리적 필요를 제시하였다. 또 後期墨家에서는 墨子의 類思想을 계승발전시키고 類의 개념을 독변 논리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논리범주로 삼았다. 예를 들면 類名은 名의 일종으로 어떤 사물의 外延反映이며 그것은 같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같은 점이 없다면(不有同) 類를 이루지 못한다 하였다. 또 『墨子』「大取」에서 "立辭而不明其類 則心困矣"라 하여 '類'를 推論의 원칙으로서 강조하였고 추론은 반드시 동類의 사물에 한정하여야 하며 類가 다르면 양자의 도량표준도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거나 유추할 수 없음을 누차 지적하고 있다(止類以行之 說在同『經下』, 異類不比 說在『經下』, 推類之難 說在大小『經下』). 『呂氏春秋』「別類」에서는 "類固相召"라 하여 어떤

속성이 같으면 각기 한 類로 귀속시킬 수 있다고 인식함과 동시에 "類固不必可推知"라 하여 같은 類의 사물이라 하더라도 小智와 大智의 관계처럼 항상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님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나아가 荀子는 『荀子』「正名」에서 "以類度類", "推類而不悖"라 하고 同「天制」에서 "以類行雜", "聽斷以類"라 하여 類를 입사와 추리의 논리근거이자 인식방법으로 생각하였다. 이상이 중국 고대의 諸子學術, 특히 동양철학의 논리학파에 해당하는 名家를 중심으로 전개된 類의 개념에 관한 이론들이다.

그러나 이 글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것은 『周易』의 類개념이다. 『繫辭上』에 "方以類聚 物以群分 吉凶生矣"라 하였는데 朱子는 方을 事情所向이라 하였고 李光地는 더 자세하게 方을 在天의 現象 즉, 春夏秋冬이 東西南北에 應함에 있어 生殺之氣가 類聚하는 것으로 보았고 物은 地의 形體 즉, 高下燥濕이 浮沈升降으로 분별됨에 있어 清濁之品이 群分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보면 類와 群의 의미내용은 같으며 다만 범주가 다를 뿐이다. 또한 同書에서 "仰以觀於天文 俯以察於地理 是故知幽明之故 原始反終 故知死生之說 精氣爲物 游魂爲變 是故知鬼神之情狀"이라 하고 "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近取諸身 遠取諸物 於是始作八卦 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이라 한 것을 보면 觀察 卽 天文과 地理에서 관찰된 사실들로부터 만물과 귀신의 情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되고, 구체적으로는 『說卦傳』에서 처럼 八卦에 따라 사물을 귀속시키는 방법이 일반화되었으며 나아가 이러한 방법으로 능히 天地를 彌綸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또 同人卦의 象傳에서 "天與火同人 君

子以類族辨物”이라 하여 군자가 處物하기 위해서는 事理의 異同, 物情의 離合, 君子와 小人의 無理, 善惡是非 등을 알아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각 事物의 類族을 기준으로 할 것을 제시한 것이며 『睽卦象傳』에서는 “上火下澤睽 君子以同而異”라 하여 만물의 細細한 差異도 결국은 大同中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마치 象傳의 注에서 말한 것처럼 天地가 서로 다르지만 陽降陰升하여 化育의 功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같으며 만물이 서로 다르지만 천지의 化를 얻고 陰陽의 氣를 稟한 점에 있어서는 유사한 것이다. 『주역』이 견지하고 있는 이러한 입장은 나중에 다시 밝혀졌지만 한의학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즉 음양오행과 類를 논하는 이면에는 반드시 모두 一氣의 游行이라는 大同의 觀點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또 東漢의 王充은 『論衡』 「知實」에서 聖人만 揆端推類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婦人이라도 推類見來할 수 있음을 제기하여 유추를 일반화하였고 程頤와 程頤는 유추에 演역적 含義를 부여하여 기본적인 사유방법으로 삼았으며 주희는 더 나아가 演역과 귀납을 결합한 의미로서 파악하고 기본적인 治學方法과 教育方法으로 응용하였다(“就其異處以致其同” 『朱子語類 卷七十』 “以類而推...是從已理會處推將去” 『同卷十八』). 이처럼 類의 이론은 중국고대의 제자학술에서부터 후대의 철학뿐만 아니라 역사학 의학 농학등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깊은 영향을 끼쳤으며 추론의 방법이 되어왔다⁷⁾.

서양에서도 Analogy(類比)에 의한 인식

방법이 오래전부터 존재하였다. 초기 그리이스의 亞리스토텔레스는 유비를 이미 알려진 연관들로부터 未知의 關聯을 추론하는 중요한 절차로 사용하였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動物의 分類에서 생식기의 유사성을 分類의 출발점으로 삼았고 중세신학에서도 속성의 유비와 비례의 유비, 속성의 내적 유비와 외적 유비 등 여러가지의 유비개념이 사용되었다.

類란 공통적인 징표를 가진 개체들의 전체 또는 그러한 집합에 대한 사고상의 模倣 즉 개념의 外연을 말한다.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개체들의 類는 개념구성의 기초가 된다. 바꾸어 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대상)의 여러가지 특징 즉 속성이나 관계에서 다른 대상과 구별된다는 것인데 이와 동시에 다른 무수한 대상들과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다⁸⁾. 이 때 한 개체가 다른 개체와 단 하나의 공통적인 속성을 갖는다 해도 이들은 하나의 類이며 각 개체는 그 집합의 원소가 된다. 따라서 현대논리학에서의 類개념은 집합논리의 일부를 구성하며 특히 논리적 類개념은 개념의 外연관계가 존재할 때 성립될 수 있다.

2) 歸類法則의 일반화를 위한 가설설정

① 類形成의 本源的 原因

가) 시간요인

중국고대철학에서의 시간은 ‘久’ 혹은 ‘宙’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⁹⁾ 우주론적 개념과 생물학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우주론에서의 시간이란 현재까지 등

8)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철학대사전』. 도서출판동녘, 1989, p.950.

9) 李烈炎. 『時空學說史』. 호북성: 湖北人民, 1988, p. 42.

7) 傅季重 主編. 『哲學大辭典』. 邏輯學卷·類條. 上海辭書, 1986.

양적 시간개념으로 膾炙되고 있는 尸子의 언급인 “往古來今日宙”라 하는 것으로서 시간이 일방향성의 不變量 즉 1차원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생물학에서의 시간이란 밤낮과 一年四時가 교대변화하면서 일으키는 일조량의 여러 조건들이 중요하므로 순환적인 시간을 가리키게 된다.

한의학에서의 음과 양이 모두 햇빛과 관계있다는 것은 이미 문헌학적으로 고증되어 있다. 『說文解字』 「阜」를 보면 산이 첩첩이 쌓여있는 모양인므로 표기했고 陽字는 易 즉 태양이 지면에 떠올라 햇살이 비치는 모양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음자는 과 그 古字인 즉 구름이 해를 가려 어두운 것을 나타내는 글자로 설명되고 있다. 또 段玉裁는 陰자의 “水南山北”을 注하면서 태양이 비치지 못하는 곳이라 하여 음양의 원의가 모두 태양과 관계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태양의 중요성은 고대로 올라갈수록 더욱 커지는데 해가 떠있는 낮이면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 일을 하고 밤이 되어 어두워지면 집에 들어와 쉰다. 이러한 생활패턴은 동식물계에 이르기까지 박쥐같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공통되는 사항이며 예외의 경우라 하더라도 주야의 리듬을 벗어나지는 못한다. 따라서 음양개념은 動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인체에는 상응하는 동정의 기구가 형성될 것이라 볼 수 있다(營衛理論).

‘내일의 태양은 또 다시 떠오른다’고 한 것처럼 생물에게 있어서 어제의 낮밤과 오늘의 낮밤은 날씨의 급변이 없는 한 외계 자극이 동일한 패턴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은 동남아의 계절풍기후구역에서는 대략 3개월을 단위로 하여 지속되며 그 다음 3개월 씩은 동일한 주야의 변화중에서도

기후자극이 이전과는 상이한 정도와 패턴으로 인식된다¹⁰⁾.

일조조건을 중심으로 그에 수반되는 여러 기후변화는 생물개체군의 생존여부와 생존방식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조건이 된다. 이에 관한 생태학적 사실을 찾아볼 수 있는데¹¹⁾ H.T. Odum에 의한 Silver Springs(플로리다주의 관광지명)의 연구에 따르면(1957) ㄱ) Silver Springs는 온도적, 화학적, 생물적으로 안정된 생태학적 군집이고 계절적인 진동을 갖고 있는 정상상태의 極相으로 되어있다 ㄴ) 군집전체의 1차 생산속도는 자연조건하의 광량과 직선적으로 비례한다(同 p.193) 하였고 개체군의 밀도변동에 있어서도 이론적으로 기후적 변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였다(同 p.262). 물론 이러한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에너지를 태양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인데 종속영양생물은 독립영양생물로부터 영양물질 즉 에너지를 얻고 독립영양생물은 태양으로부터 광합성을 통하여 고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다¹²⁾.

따라서 晝夜와 四時¹³⁾ 또는 장마철을 포

10) 이것은 곧 계절의 교대를 의미하며 계절과 주야를 합론하면 두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주야를 중심으로 보면 4 또는 5가지의 주야패턴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 계절을 중심으로 보면 각 계절마다 주야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의미의 상호간섭성은 음양과 오행의 상호간섭성 또는 상호포괄성을 설명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며 형식은 陰陽包五行, 五行含陰陽으로 나타난다.

11) Odum 저; 조규승 외3인 편역. 『生態學』. 서울: 형설출판사, 1994, p.215. 群集水準의 기구와 원리의 개념중 日周期性과 季節의 周期性에 관한 문제.

12) 원병오 외6인. 『生物科學』, p.149.

함하여 五時는 생물계의 생존양상에 본질적 영향을 미치며 적응기제를 형성하는 진화과정중 구조와 기능의 조정에 있어 본질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나) 空間要因

중국고대철학에서의 공간은 '宇'로 표현되며 尸子가 "上下四方曰宇"라 한 명제가 지금도 통용되고 있는데 이는 6방향 즉 長、寬、高의 3차원 공간으로 규정된다¹⁴⁾. 이는 다시 전혀 상이한 2개의 속성끼리 묶어 볼 수 있는데 四方이라는 평면구조와 上下라는 수직구조가 그것이다. 사방이란 관찰자 위치에서 보면 전후좌우로 표현되고 지리학적으로 보면 경도와 위도에 의한 좌표계 즉 동서남북으로 표현된다. 이 중에서 특히 생물학적으로 더 큰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은 위도에 따른 생물군집의 분포이다. 그 까닭은 태양의 입사각에 의한 온도 분포의 차이와 각기 다른 地形的 諸特性이 결합하여 각 方位別로 고유한 특징과 속성을 구성하기 때문이다¹⁵⁾.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방위의 지리적 특성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구조와 평면구조간의 內含意味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보는 일이다. 상하는 곧 天地(乾坤)인데 陽之輕清者가 上升한 것이 天이며 陰之重濁者가 下降한 것이 地이니 상하는 곧 陽陰이다. 사방은 중앙에 거처하는 天子가 관찰한 사방이며 실제로는 五方이니 곧 오행을 생성하는 원인이 된다¹⁶⁾. 다시 말하면 공간요인은 다시 음양의 구조와 오행의 구조로 분석할 수 있으며 상하에도 오방이 있고 각 방위에도 각

기 상하가 있으니 음양중에 오행이 있으며 오행중에도 음양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시공간의 분석을 통하여 관찰한 음양 오행개념은 필연적으로 二重으로 交互運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시간과 공간 그 자체는 거의 고정적인 요소로서 그 속성이 변화하지 않으며 사물의 상태나 양상이 시공간의 한 측면-음양오행속성-과 관련될 때 類를 형성하는 基因이 된다.

다) 氣候環境要因

기후환경이 生物種의 결정이나 생존방식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함은 여러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으나 이는 시간이나 공간요인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어서 어느 선 까지 기후요인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나누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시공간요인이 불변적인 것이라면 기후환경은 상대적으로 변화무쌍하고 그 폭도 대단히 크기 때문에 생물의 여러 변화양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더위가 많다면 그 지역의 식물은 發散을 위한 구조 즉 잎(동물이라면 폐나 피부에 해당)이 발달해야 하며 추운 곳이라면 발산을 막기 위해 잎은 최소한의 면적을 가져야 하고

14) 『時空學說史』, p.21.

15) 중국의 地形地理의 특색에 대해서는 조셉 니담의 『중국의 과학과 문명』 1권에 표와 그림을 동원하여 상세히 설명되고 있으며, 이 글의 (3) 1)에서도 설명한 바 있고, 『素問』 「異法方宜論」에서도 개괄적인 정보가 제공되어 있다.

16) 이 점에 대해서는 「내경」 「음양옹상대론」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東方生風 風生木, 南方生熱 熱生火···). 또한 오행기원설의 하나로써 五方이 제시된 바 있다.

13) 『說文解字』에 의하면 時란 곧 四季인 春夏秋冬을 의미한다.

중위도 지역에서는 寒暑가 交代하므로 앞의 변화가 그만큼 빠르게 일어난다(단풍과 凋落).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 세대에 걸쳐 나타나는 특징적인 기후변화의 패턴은 생물체 내에 적응기구를 형성하도록 하며 그 기구의 역할은 그 생물체의 생존조건에 있어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중국을 각 방위별로 풍서습조한의 다섯 가지 기후현상이 대체로 일치되어 나타나며 생물의 성장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체와 고도로 분화된 동식물들은 그러한 기후들에 대하여 적절한 應化機構 즉 同化機構와 排除機構를 형성하여 적응하게 된다¹⁷⁾. 이를 알기 쉽게 생물학적 사실에서 예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¹⁸⁾. 지리적 특성에 따라 생물상이 뚜렷이 구분되는 커다란 육상의 생태계를 생물군계(biome)라 하는데 각 생물군계는 지구의 기후유형을 따른다. 열대우림은 따뜻한 기온, 풍부한 강수량, 연중 변함없는 낮의 길이 등으로 아프리카, 아시아등지에 넓게 퍼져 있는데 이는 밀집된 큰 나무로 이루어진 삼림이다 落葉樹林은 적도에서 떨어진 中緯度地域의 뚜렷한 계절변화가 일어나는 곳에 형성된다. 그 이유는 적당한 계절동안 자랐던 잎이, 성장하기에 적절치 않은 계절인 가을과 겨울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낙엽식물의 바로 아래 자라는 하층식물의 생활환은 가려진 잎들의 틈

으로 투과되어 들어오는 빛의 양이 최고조에 달하는 때를 맞춰 짧게 일어난다. 침엽수림은 추운 겨울이 있는 지역에 형성되며 북반구의 거대한 대륙에 이어져 있다. 고비사막 같은 사막기후에서는 높은 증산율과 적은 강수량으로 특징되는 기후환경의 자극에 대하여 전형적인 직응례를 보여주는 植生을 찾을 수 있다. 식물은 사막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진화하였는데 봄 여름의 단기간 내리는 비에 일년생 식물이 융단같이 자라서, 발아에서 종자뿌리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마치고 나머지 기간은 휴면종자의 상태로 지낸다. 탈수를 막기 위한 선인장의 특수한 구조와 활동, 식물들의 뿌리 깊게 내리기, 동물의 야행성, 夏眠動物 등은 모두 적응의 적나라한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기후환경요인은 비단 생물계에서만 작용하지 않는다. 인간의 군집체인 취락의 형성이나 더욱 본질적으로 문화의 형성과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⁹⁾. 이는 인간과 기후조건과의 상관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인간의 內的氣質形成 및 질병과정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② 類形成의 直接的 原因

가) 萬物本具之情

情이란 사물에 접하여 마음에 자연스런게 일어나는 好惡喜怒哀樂등의 感性이며 作爲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서

17) 적응 자체의 의미는 생물이 가지는 생물학적, 생리학적 성질이 그 환경 아래에서 번식에 적합한 것을 의미하지만 특히 그 형질이 다음 세대에 遺傳하는 것만을 지칭하며 비유전적인 것은 순응 또는 조정이라 한다(김준민, 임양계 편저, 『生物學事典』, 창원사, 1989).

18) 이하는 원병오 외6인 공저, 『생물과 학』, 서울: 형실출판사, 1992, pp.647-56. 요약.

19) John Fairbank 외2인 공저; 김한규 외2인 공역, 『동양문화사』, 서울: 을유문화사, 1991, pp.5-6.

本性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또한 情은 心意 또는 志 즉 만물이 서로 교감을 나눌 수 있게 하는 매개수단이기도 하며 따라서 이 쪽 사물의 저 쪽과의 관계를 형성시키는 始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것이 곧 感應, 感引하는 情이다²⁰⁾. 여기서 는 정의 의미를 인간의 감정 또는 정서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지 않고 만물이 서로 모이고 배척하는 본래의 자연적인 성질, 또는 感應性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정의 의미는 수시로 변화하는 개념이 아니며 항상 동일한 속성을 나타낸다는 함의를 갖는다.

『春秋繁露』, 「同類相動」에 “今平地注水去燥就濕 均薪施火 去濕就燥 百物其去所與異 而從其所與同”이라 하였는데 이것의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만물은 속성이 서로 같으면 한데 뭉치고 속성이 서로 다르면 멀어지는데 지금 물이 습한 곳으로 흐르고 불이 건조한 곳으로 타들어 가는 것은 물과 불의 성질이 각기 습하고 조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함을 설명한 말이다. 다시 말하면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불이 마른 연료를 태우는 것은 각기 물불의 본성에 해당하며 로크가 말하는 제1 성질에 관계된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周易』 「乾卦」 「文言傳」에도 나오는데 “同聲相應 同氣相求 水流濕 火就燥 雲從龍 風從虎 各從其類也”라 함이 그것이다.

병리학의 병증론에서는 病情을 나타내는 증상이 예후판단과 치료방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표지가 된다. 傷寒太陽證의 惡寒이나 陽明證의 不惡寒 反惡熱 陽明實熱證의 惡人與火, 기타 惡聞食臭등등이 그것인데

마치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애착하거나 離舍去就하는 것처럼 병증도 어떤 대상을 찾거나 거부하는 것이니 곧 그러한 병정은 병증당시의 정확한 상태 또는 性狀을 반영하게 된다.

나) 隨時取義之屬

여기서는 시간이나 공간처럼 본질적인 요소도 아니고 정과 같이 항상 동일한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諸類似性들을 모아서 다루도록 한다. 따라서 이 범주에 속하는 유비의 대상과 속성도 광범하기 마련이며 한의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개념들을 포괄한다. 이제 두 部類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 本草學 部門에서의 類形成

본초학에서의 類이론은 가장 명확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晉代 무렵에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神農本草經』에서는 三品으로 分類한 각 본초에 대해 기미를 위주로 하여 주치와 병증을 나열 서술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청대의 『本草備要』와 『本草從新』등에 오면 본초해석이론이 상당히 정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藥性總義』부분을 인용하면 “凡輕虛者浮而升 重實者沈而降 味薄者升而生 氣薄者降而收 氣厚者浮而長 味厚者沈而藏 味平者化而成 凡質之輕者 上入心肺 重者 下入肝腎 中空者發表 內實者功裏 凡色青味酸氣臊 性屬木者 皆入足厥陰 肝足少陽膽經 凡藥各有形性氣質 其入諸經 有因形相類者 有因性相從者 有因氣相求者 有因質相同者 有相須者 同類而不可離也”라 한 언급들로부터 각 본초가 갖고 있는 形, 性, 氣, 質, 色, 味 등의 속성에 의해 작용방향 또는 작용위치가 결정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20) 諸橋徹次, 『大漢和辭典』 「情條」.

의 『本草問答』에 이르면 類比가 더욱 발전하여 모든 본초의 작용기전을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로부터 본초학의 토대는 각 본초가 갖고 있는 여러 성질중 특정성질을 기준으로 상동성을 결정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특정성질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제기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본초의 적용대상인 인체의 병증특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예를 들어 紫蘇라는 약을 보면 氣分이 울체되어 咳嗽하거나 胎가 不安하면 辛味가 氣分으로 들어감을 취하여 治하고 瘀血腫痛이 있을 때는 색이 紫하여 血分으로도 들어감을 취하여 和血止痛에 쓸 수 있으며 感寒表鬱한 경우에는 약성이 輕하고 溫한 것을 취하여 發汗散寒에 쓸 수 있고 심하가 비塞하면 氣가 좁한 것을 취하여 開胃寬中하는 작용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하나의 약제가 그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특성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면 약을 쓰는 각 경우에 결국 어떤 작용이 기대되는가 하는 점이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본초학의 七情說과 引經報使理論 및 修治理論이다. 이들은 공히 한약제가 지니는 여러 특성중의 어떤 한가지를 더욱 현저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함인데 이를 통하여 해당약재 중에서 특히 의도하는 작용만을 얻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는 약재와 인체의 유비 및 藥材間, 또는 作用間에²¹⁾ 이

21) 약재간의 유비라 함은 칠정설이나 인경보사설에 따라 타 약재와 배합하여 썼을 때를 말하며 작용간의 유비라 함은 볶거나 담그거나 하여 火性이나 水性을 더욱 촉진시키므로써 약재 자체의 작용과 인위적 수처에 의한 작

중의 유비구조가 존재함을 볼 수 있다.

b) 기타 부문에서의 類형성

생리학이나 병리학, 진단학, 침구학 및 각 임상변증시에도 여러 種類의 유비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인체의 기능을 해석하거나 병증을 해석할 때 여러 分類 기준-모든 경우에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을 활용하게 되는데 침구학에서의 오수혈 배정과 응용도 유비의 예에 속한다. 이들의 범주를 요약하면 발생위치나 시간 또는 색, 형태, 聲, 氣, 발전방향, 動態, 성질, 기타 오행적 取象이나 動靜 등이라 할 수 있으며 음양의 歸類라면 여기에 體用 즉 물질과 작용 또는 구조와 기능의 관계, 좀더 확대시켜 말하면 道器의 관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반드시 확정적인 표준개념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다.

③ 유비논증의 논리학적 형식

여기서는 한의학에서 이론의 기반이 되고 있는 논리형식인 유비논증 또는 유비추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²²⁾. 유비논증은 귀납논증의 하나로서 그 결론이 개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일 수는 없지만 새로운 의미를 지닌 결론을 얻기 위해 유용하게 쓰이는 논리적 방법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귀납추리와는 다른데 귀납추리가 특수한 사실들로부터 一般化를 통하여 일반적 법칙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면 유추는 개별적인 하나의 특수한 사실로부터 그와

용이 상합하는 것을 말한다.

22) 웨즈리 새먼 저; 곽강제 역, 박영사, 이 부분은 『論理學』, 1988, pp.214-221; 조용일, 『一般論理學』, 서울: 동성사, 1988, pp. 247-252. 참조.

비교되는 또다른 특수한 사실로 나아가 그 두 사실간의 유사관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유비추리는 의학 철학등을 포함한 科學史上의 각 학문분야에서, 그리고 예전부터 많이 사용되어 온 것으로 인식의 방법인 동시에 설명의 방법이다²³⁾. 그 예가 상당히 많지만 일반적인 논증의 형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는 abcd이며 또 e다.
B는 abcd이다.
그러므로 B는 e이다.

이를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A라는 유형의 대상은 abcd등의 속성을 갖고 있으며 B라는 유형의 대상도 abcd등의 속성을 갖고 있다.

A라는 유형의 대상이 e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면 결국 B의 대상도 e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처럼 유비논증은 두 대상간의 유사성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비교되는 두 대상 사이의 유사성(similarity)의 강도에 따라 논증결과의 강약이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두 대상간의 관련있는 유사성이 많아질수록 그 논증은 강화되며 관련있는 차이성이 많아질수록 그 논증은 약화된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관련있는 유사성과 차이성을 여하히 판별하느냐 하는 점인데 철학적으로는 定量、定性、性質、因果、對稱、條件유비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한의학에서의 유비기준은 바로 ①, ②에서 제시된 내용들이다.

다시 일반화하여 말한다면 '관련있는 유사성'에 해당되는 부분은 고대철학에서의 '類合'、'類同'、'類聚'、'比類' 등의 내용에 해당되며 결론의 도출은 '比類取象'의 취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비추리가 가급적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지켜야 한다.

1. 비교되는 유사점은 가급적 많아야 한다.
2. 비교되는 유사점은 비교되는 대상 내지 그 사태의 본질적이고 적극적인 성질을 지녀야 한다.
3. 이끌어 낼 결론을 배척할 속성이 전제에 포함되어 있으면 안된다.

이렇게 보면 한의학에서의 유비론과 歸類방법등을 어떻게 운용하며 학문적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자명해진다. 이미 수행되고 있는 五行歸類 및 상응에 관한 모든 지식들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연관된 유사성을 근거로 판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誤謬를 시정하고 앞으로 미지의 지식에 대하여도 계속 제발해 나가야 한다. 또한 양의학적 지식과의 대비도 신중히 해야 할 것이며 자연계에 관한 一般知識이 상당히 넓어진 만큼 유비의 폭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④ Bertalanffy의 一般體系理論(General System Theory)과 類質同相

여기서는 서양과학 분야에서 유비개념을 주요한 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시스템이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버틀란피는 본래 생물학자이지만 당시의 학계를 풍미했던(1920-30년대) 기계론(mechanism)과 생기론(vitalism)의 극한적 대결을 피하기 해결하기 위해 유기체개념

23) 邏輯學卷, 『哲學大辭典』, p.360.

에 착안하여 유기체의 통합성에 대한 사유를 발전시켰고 이에 기초하여 생물학에서의 체계(system: systema의 원래 의미가 통합 또는 전체라는 의미임)에 관한 이론을 개발하였다. 처음에는 그의 조직호흡에 관한 연구와, 동물에서의 물질대사와 성장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 적용하였지만 차츰 시스템의 等終局性(equifinality)에 착안하여 열역학, 사이버네틱스, 물리화학, 인간학, 심리학, 정신병리학, 사회학, 역사학, 人類學등에도 적용하여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음을 발견하고 일반체계이론을 완성하였다(1940-68). 당시로서는 어쩌면 무모하리만치 보일 수 있는 전혀 엉뚱한 분야로의 적용을 가능케 했던 것은 그가 자연 및 사회에서의 여러 현상들이 궁극적으로는 유질동상 또는 동형(isomorphism)원리에 의해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난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유질동상이란 본래 심리학에서 눈이 형태를 지각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로부터 도출된 개념인데 흔히 계슈탈트법칙으로 알려져 있으며 착시현상을 설명할 때 많이 이용된다. 여기서는 그의 저서인 『일반체계이론』을 인용하여 그의 사유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상이한 분야의 유사한 구조법칙이 존재하게 되면 좀더 복잡하고 다루기 힘든 현상들에 대하여 더욱 간단하고 더 잘 알려진 모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일반체계이론은 방법론적으로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에로의 원리의 이전을 조정하고 자극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과학에 있어서 유추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며 유용한가에 관한 정의를 요구한다.”

“특정한 일반원리는 체계의 성격과 무관

하게 모든 체계에 적용될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그리하여 전체성, 합, 기계화, 위계적 질서, 안정상태에의 접근, 등중국성등과 같은 원리들은 서로 크게 다른 학문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다. 상이한 영역에서 발견되는 유질동상은 일반체계원리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일반체계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개념의 한계는 다른 한편으로 현상 묘사에 있어 세가지 種類 혹은 수준을 구분함으로써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유추가 있는데……매우 불투명한 채로 남아있다. 둘째 수준은 相同性이다. 논리적 상동성은 과학에 있어서의 유질동상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현상에 대한 올바른 사고와 실질적인 설명을 위한 교훈을 하나의 개념적 모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세번째 수준은 설명이다.”

“과학의 통일성은 서로 다른 분야에서 발견되는 법칙과 개념적인 틀의 상응성과 유질동상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그는 4장에서 체계과학과 관련된 여러분야의 이론들과, 이론이 완성되기까지의 사고과정 및 적용범주의 확대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²⁴⁾. 유질동상이란 기본적으로 유비구조와 동일한데 그의 문맥에서 보면 특히 논리적 상동성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애매하거나 피상적인 유추를 경계하고 각 요소에 관한 법칙이 현실적으로 동일한 경우를 찾아내어 하나의 모형을 타 분야에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유비론 성립조건인 형식화 또는 표준화라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유비론의 학적 성격은 이미 서양과학에 의해서도 새로운 위

24) 同書, pp.131-166.

상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시공간과 인간²⁵⁾

1) 토인비와 러브록이 보는 시공간과 인간의 관계

토인비는 주지하다시피 역사가이며 문명 이론가로서 문명은 여러 種類의 도전에 대한 응전의 결과 생기는 것이며 그 문명은 유기체와 같이 발생 성장하고 쇠퇴기를 거쳐 해체하게 된다는 이론을 전개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방대한 예증을 그의 주저 『역사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이 여기서 『역사의 연구』를 인용하는 것은 단지 그가 들고 있는 예증들을 통하여 그가 이해하고 있는 시공간의 의미를 재해석하기 위함이다. 그는 21개의 사회를 문명단위로 하여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써머벨의 요약판을 통하여 설명해 나가고자 한다.

그는 이집트 문명의 발생에 대하여 “역사시대라는 제한 안에서 아프리카 초원 지대와 나일강 평야의 자연조건은 오늘이나 2400년 전이나 언제든지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거처도 생활 양식도 같이 변경함으로써 건조의 도전에 응한 집단들이 있었다. 이 보기드문 이중적 반응 들이야말로 이집트 문명과 수메르 문명을 창조한 역동적인 행위였다.”라 하여 건조에 대한 이집트 문명의 적응을 논하였고, 중국의 문명은 소택지와 숲덤불과 홍수 및 흑서와 흑한 등의 도전에 직면하여

이루어졌으며²⁶⁾ 태평양 연안의 마야문명은 사막의 炎熱과 한발 등에 응전하면서 이루어진 문명이다. 이러한 설명들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로서 토인비는 도전에 대한 성공적 응전의 결과로 문명이 탄생된다는 점을 예증하기 위하여 설명한 것이지만 동시에 환경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형식으로든지 적응을 하도록 요구하며 적응하지 못하면 사멸할 수 밖에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각 환경들의 여러 자극 특성에 대하여 각 수준의 유기체²⁷⁾들은 그 특성에 견뎌낼 수 있는 방향,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생명을 지속하여 유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려 하며²⁸⁾ 그러한 변화의 傾向성과 變形들이 累代에 걸쳐 반

26) 또한 중국의 풍토와 자연환경이 중국의 역사와 사상형성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동양의 과학과 사상』(김용운, 김용국 공저, 일지사, 1984, pp.16-23.)과 니담의 『중국의 과학과 문명』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즉 큰 비와 가뭄, 바람, 습기, 더위, 홍수 등의 몬순(계절풍)과의 관계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水利社會의 특성(위트 포겔), 황토라는 특수한 자연의 이중성 등이 商代以後 中國氣候의 일반적 특징이다. 그러나 비만 적절히 온다면 황하의 토사는 곧 擊壤歌를 부르는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갖가지 기후현상이 一氣의 연속적 변화상에 불과하며, 이들이 끊임없이 삼라만상을 펼쳐내는 生生의 조화작용이 곧 氣의 본질로서 사유되는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27) 각 수준의 유기체라 한 것은 버틀란 피가 말하는 일반 시스템이론에서의 각 시스템 수준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사회시스템, 가족시스템, 인체시스템 등.

28) 이러한 자기조직, 자기구성의 원리를 갖추고 있는 것이 시스템이론에서의 유기체의 의미이다.

25) 이 부분은 (2) 2) ①에서 類형성의 본질적 원인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각 분야별 보충적 설명의 성격을 지닌다.

복되어 각 유기체 내에 저장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명이 만들어지며 인체 수준에 있어서도 내부구조의 경향성과 적응성이 특징지어지게 되는 것이다.

시공간 즉 우주와 인간을 포함한 생물의 관계를 해석하는 최근의 이론으로 Gaia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이 설을 제창한 Love-lock에 의하면 지구는 살아있는 거대한 유기체로써, 자기 주위의 물리적 화학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들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환경요소들이 모두 합쳐져서 단단히 결합된 조화를 이룬 실제 즉 가이아시스템이다²⁹⁾. 그는 데이지 세계모델을 통하여 온도가 낮은 처음에는 온도조건에 맞는 짙은 데이지가 성장하지만 양의 피드백효과를 일으켜 결국에는 성장이 저지되고 옅은 데이지가 경쟁하면서 조성비를 결정하게 되며 행성의 기온을 최적화시켜 존속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 이론은 얼핏 보면 적응이론과 모순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욱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는 생물들의 환경조절메카니즘으로 자기통제시스템(autoregular system) 또는 cybernetic system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생물(유기체)시스템이 자동제어계의 3요소인 감지기, 조절기, 반응기를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를 인체에 적용하면 인체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정보를 받아들여 자기구성하면서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라는 의미이니 여기서의 자기구성이 바로 통합이며 효과적인 적응기구를 자체생산할 수 있는 원인이다. 바로 이러한 적응과 통합을 통하여 환경과 인체 사이에는 不斷交通하고 단단히 結合되어진

29) 계간 『과학사상』 제4호. 1992 겨울, p.129; 가이아, 러브록 저; 홍육희 옮김. 서울: 범양사, 1990.

天人合一關係가 형성되는 것이다.

2) 한의학에 있어서의 시간과 공간의 관계

한의학에 있어서의 시간과 공간은 四時와 五方位이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은 서로간에 단단히 결합되어 있으며 따라서 물리학에서 흔히 표시하듯이 좌표축으로 쉽게 직각으로 그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시간이란 空間物的 변화의 현현이며 이를 통하여 인지된다. 흔히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晝夜는 태양의 변화 없이는 인지되지 않으며 四時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물상의 변화 없이는 인지되지 않는다. 또 오행개념의 기원설로 제시되는 五方도 사실 은대 갑골문의 기록을 통해보면 바람이나 비의 방향(변화를 자각케 하는 자극)으로부터 인식되었으며 동서남북도 해가 朝夕 또는 춘하추동의 시간변화에 따라 위치하는 곳의 개념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인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南方生熱 熱生火... ” 『素問』 「陰陽應象大論」

“心者... 爲陽中之太陽 通於夏氣 肺者... 通於秋氣” 『素問』 「六節藏象論」

“朝則爲春 日中爲夏 日入爲秋... ” 『靈樞』 「順氣一日分爲四時」

“以春甲乙傷於風者爲肝風 以夏丙丁... ” 『素問』 「風論」

이를 다른 말로 다시 표현하면 시공간 즉 우주는 천지라는 큰 마당에 붙어 있는 인물(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존재로부터 인식되며 우주의 변화는 곧 인물의 변화로부터 확인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

주와 人物간의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 이것이 곧 ‘天人一也’의 궁극적인 의미이다.

거기서 더욱 발전하여 우주라는 체계와 인간이라는 체계의 제반형식과 변화패턴이 구체적으로 相同함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한의학에서의 천인상응이론이다. 따라서 서양생물학에서 말하는 적응(adaptation)이론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적응이론이 자연환경의 자극에 대하여 생물 지속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수동적, 능동적 반응기제였다면 相應은 그러한 作爲的인 반응이 아니라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또는 자연적으로 대우주와 상동한 기구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바로 이점이 Isomorphism과의 차이점이 되는데 버틀란피의 類質同相이나 심리학에서의 게슈탈트 법칙이 논리적 상동성 또는 형태상의 상동성만을 근거로 성립된 것이라면 상응은 본질적이면서도 형식과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공간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人物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 가이아이론과의 유사성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주된 시각이 최적화이론 즉 되먹임을 통한 자기조절에 있고 거시생태학적 분석에 치중하여 구체적인 내용 또는 인간단위의 분석이 부족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각기 다른 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열거하여 비교하는 것은 이러한 각 이론들이 전체적으로 天人相應 또는 歸類法則의 성격과 내용을 밝혀 주는 데 부분적으로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4) 구조와 기능의 문제

유기능 이론에서는 구조형성의 단위와 성분으로서 精神氣血을 들고 있고 기능은 자율적 적응기구인 五臟의 수형적 기능과 不隨形的 기능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인체의 구조적 토대는 정신기혈이며 기능적 토대는 오장으로 분석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구조요소와 기능요소가 분리된 결과를 가져오며 그 중에서도 오장중심의 기능계를 설정하여 구조보다는 기능중심의 생리학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한의학의 이론에서 볼 때 구조와 기능의 분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구조와 기능에 對當하는 한의학의 용어는 形氣라 할 수 있다. 예로부터 ‘形氣一體’ 또는 ‘神形一體’, ‘形氣相任’이라 하여 상관성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無器不有’라 하여 器宇가 없으면 升降出入의 化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형과 기중에서 어느 하나를 특별히 더 중시하라고 한 언급은 없으며 다만 임상방서를 보면 형의 측면보다는 기의 측면을 더욱 많이 치중하고 있는 것을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은 형이 덜 중요해서라기보다는 형의 손상으로 인한 병폐가 기에 의한 그것보다 수효가 적고 또한 형보다 선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생긴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만일 형의 일종인 精이 손상되었다면 精을 補하는 치법이 당연히 우선되어야 한다. 굳이 구조와 기능을 나누어 논한다면 오장이 오히려 구조로 해석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內經多學科研究』에서 사이버네틱스이론을 이용하여 오행을 설명하면서 애쉬비의 內安定器模型 중심에 五臟을 배치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구조와 기능은 동시에 다루어져야 하며 어떤 器物의 구조특성으로부터 기

능이 유추되고 기능특성으로부터 구조가 유추되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이것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器物의 구조와 기능은 시간과 공간의 음양오행적 속성에 의해 제약되며 역으로 구조와 기능의 속성에 따라 각기 음양오행의 類가 형성되는 것이므로 음양오행의 매개를 통하여 상호간에 결합된 관계를 갖는다.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형은 기를 담는 그릇이고 기는 그릇을 따라 산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氣血、精神、臟象 등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야만 상호관계와 관계의 균형조화를 중시하는 한의학의 일원적 사유체제와도 부합하게 된다.

참고로 『철학대사전』을 통하여 구조와 기능의 의미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구조란 '어떤 체계의 요소들을 결합시키는 관계들의 집합'이고 기능은 '특정한 행동 또는 작동방식을 산출하는 동적 체계의 능력'이며 '이 능력은 체계의 구조 및 체계내 요소들 사이의 결합방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각 체계에서의 구조와 기능은 변증법적 통일을 이룬다'고 적고 있다³⁰⁾.

(5) 對象形成과 對象觀察의 原則

대상이란 어떤 학문을 타론하고 그 학문이 분석 또는 설명의 객체로 삼고 있는 대상을 말한다. 한의학에서의 대상은 물론 전일생명체 또는 인간이며 이 인간을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의 원칙이 존재한다.

1) 대상형성과 通時性의 원칙

'현재의 인간'을 형성하는 데는 기본적인 두가지 과정이 개재되어 있다. 그 하나는 역사적 과정으로 인간의 지식과 심적 발달

이 유사 이래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왔으며 그러한 정보의 총체적인 내용은 유형, 무형으로 '현재의 인간'에게 담겨져 있음을 뜻한다. 다른 하나는 생물학적 과정으로 인간의 육체적인 발달과정 즉 受精에서부터 발생(development)과 출생(birth), 성장을 거쳐 성인에 이르기까지의 발달과정 및 그 정보들이 '현재의 인간'에게 보존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전자는 용의 심리학에서 그 편린을 볼 수 있는데 집단무의식에서 나타나는 太古類型(arche pattern)과 관련되어 있으며 후자는 유전학설이나 생리학의 체질학설 및 핵켈의 발생반복설 등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마음과 육체의 두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패턴을 반복하면서 이어져왔다. 그러므로 '현재의 인간'에는 과거의 정보와 패턴이 존재하며 그 공통성이 溫故知新이나 古爲今用을 가능케 하는 원인을 이룬다. 따라서 '현재의 인간'을 형성하기 까지는 일정한 역사적 생물학적 과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곧 통시성의 원칙이며 그 원칙의 내용은 "개체발생은 계통발생을 되풀이한다"는 핵켈의 법칙으로 요약될 수 있다.

2) 대상관찰과 共時性의 원칙

한의학에서 '현재의 인간'을 관찰하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항상 상관관계속에 있는 개체'라는 점이다. 인간은 자연과 상응하는 동시에 수시로 자극을 받고 이를 同化調節하여 내적 평형을 유지하며, 자연으로부터 取食하고 배설물을 내보내어 자연계와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사회라는 인간의 조직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회적 존재이기

30) 『철학대사전』, 동녘, p.153, p.186.

도하다. 이처럼 인간은 인간을 포함한 외부세계와 항상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이러한 '관계된 인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의 전체를 관찰해야 하는데 이것이 곧 공시성의 원칙이다. 따라서 공시성의 원칙은 자동적으로 인간으로부터 확장된 열려진系(유기체의 open system)를 전제로 하게 된다. 여기서 open의 의미는 다양한데 넓게는 천지자연으로부터 좁게는 인체내부의 각 계통, 한 부분에 이르기까지의 온 체계(general system)를 모두 포괄한다.

이상과 같이 대상을 분석함에 있어 공시성과 통시성으로 分類하는 이유는 유기능이론이 갖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요약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守約의 시각에서 논술했음을 특기해 둔다.

(6) 생명현상의 일반화

생명이나 생명체, 생명현상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학의 생물학 교재에서도 생명을 직접 정의하는 대신에 생명체의 작용과 특성³¹⁾을 거시함으로써 간접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또 한의과대학 생리학 교재에서는 생명체의 특성을 '개체보존을 위한 최선의 자기적 세력을 가진 것'이라 요약하고 다시 현상적 특성을 중심으로 운동, 성장, 영양, 호흡, 배설의 다섯 種類로 설명하고 있다.

전절에서 저자는 시공간의 특성으로부터

음양오행의 본질적 속성이 형성되는 기전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생명현상에 내재해 있는 屬性 자체로부터 생명체의 특성을 유도해 보고자 한다. 간혹 비약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비약은 진화과정 중에서도 흔히 있어온 일이라 생각된다 (elan vital).

자연에 존재하는 물리법칙-생물을 포함하여-은 항상 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공중에 있는 물체는 중력과 평형을 이루기 위해 지상에 떨어지는데 이것은 힘을 소모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며 여기에는 생명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연법칙에 의해 일어나는 과정을 順의 과정이라 한다면 사람이 걸음을 한발짝 내딛는 것은 하방으로 작용하는 자연의 힘 즉 중력에 거슬러서 앞으로 옮겨 놓은 것으로 逆의 과정이다. 또한 ATP를 소모하는 화학반응계와 같이, 계가 유지하고자 하는 安定化傾向을 거슬러서 어떤 변화 내지 작용을 일으키는 것도 또한 역의 과정이다. 이러한 크고 작은 두 가지 과정에는 모두 자연의 힘에 맞서 이겨내기 위한 상대적인 힘을 소모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어떤 계가 이 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 요구된다. 곧 힘을 생산할 만한 어떤 물질이 도입돼야 하며 한정된 계 내부에 계속 쌓아둘 수는 없으므로 이용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밖으로 배출해야 한다. 또한 외부로부터 들어온 물질을 加工할 만한 기구를 내부에 갖추고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두 가지의 기본과정이 필요하다. 첫째는 물질을 잘게 부수어 그 계가 활용할 수 있기까지의 형태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다시 이것을 역의 활동이 필요한 곳에 보내 주기 위한 공급로와 공급장치가

31) 고도의 체제화, 에너지 이용, 생식과 유전, 성장과 발생, 자극에 대한 반응, 적응, 항상성 유지등(원병오 외6인, 『生物科學』, 형설출판사, 1992, p.25-6).

필요하며 들쭉는 이 물질을 소모하여 힘을 산출하는 최종적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곧 하나의 생명체를 橫的으로 관찰했을 때 체계(system) 내에서 일어나는 최소한의 과정이며 縱的으로 관찰하면 生殖過程이 추가된다³²⁾. 다만 진화단계에 따라

각 과정은 다양한 형태로 발현된다.

예를 들면 호흡의 경우 발효단계에서부터 무기호흡과 유기호흡의 체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운동기계의 경우 단순히 고착성만을 갖는 경우에서부터 위족 편모 섬모 多足類를 거쳐 포유동물의 근골격계에 이르기까지, 또 배설기의 경우 단순한 배출구에서부터 고도로 분화된 사람의 신장 구조에 이르기까지, 순환기의 경우 물질을 보내기 위한 단세포 조직에서부터 인간의 2심방 2심실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 진화의 단계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본래의 목적은 같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형태가 단순하다 하더라도 각 수준의 생명체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 보존하기 위한 전일적 체계를 갖고 있으며 그 방식은 앞에서 연역된 오종의 기능활동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제 순차적으로 인체의 장기체계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逆의 과정을 수행하는 장기체계는 인체에 있어서 肝器能系에 해당한다. 왜냐 하면 크든 작든 ATP를 소모하는 과정은 모두 안정상태를 벗어나 계전체를 勵起시키면서 활성화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은 근뿐만 아니라 힘용 소모하는 과정들을 유기능적으로 모두 포섭하게 되며 疲極의 근본이 되는 所以이다. 또한 여기와 활성화작용은 氣機로 표현하면 升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인체에 있어서 도입과정을 맡고 있는 것은 폐와 胃이며(肺司呼吸, 胃主受納) 배설과정을 맡고

32) 생식의 본성에 관한 문제를 세부적으로 논구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저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생식의 第一義的 目的은 물론 종족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종족보존의 원형(arche pattern)은 자기자신의 보존이다. 생식의 문제는 바로 이 점에서 출발한다. 열역학 제1법칙에 의하여 체계(system) 內의 에너지는 보존되며 이에 따라 그 계는 자신의 생명현상 또는 생체기전을 계속 유지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이와 상반되게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하여 그 계는 결국 열적 죽음(heat death)의 상태로 진전될 수 밖에 없으며 그 계는 이에 대항하여 자신을 보존하고자 하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이것이 곧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동물에게서 나타나는 분열의 방법이다. 그러나 곧 이어 유전자 풀을 형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보존기구로 등장하게 되어 性의 분화가 일어나는데 이의 중간과정으로 해면류와 같은 자동동체 단계가 존재한다(사실 이러한 사유를 하게 된 배경에는 Ilya Prigogine의 霧散構造理論(Dissipating structure theory)과 생물학의 情報依存理論(Information dependent theory)의 시사에 합입은 바 크므로 해당 이론들을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性의 분화는 아마도 유기체 내부에서 보다 나은 생존의 가능성을 획득하기 위한 기능의 분업화와 관련될 것으로 생각된다. 기능의 분화는 氣質의 분화를 촉진하고 이는 다시 기구의 분화로 이어져-이들 변화는 물론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결국 性의 분화를 이루었을 것이다. 나아가 性적으로 분화된 개체들은 획득형질을 유전함으로써 적응(adaptation)에 성공할 수 있었고 진화를 거듭하면서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인 생식 기구를 갖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있는 것은 대장과 방광 그리고 이들을 주관하는 腎이다(大腸者傳導之官化物出焉 膀胱者州都之官氣化則能出矣 腎司二陰). 이때 물질을 위에서 받아 아래로 내려주는 것이 쉬운 길이므로(易簡) 폐와 위는 위에 존재하고 그 氣機는 降을 주하며 대장이나 방광, 신등은 下에 있으며 기기는 出 또는 沈을 주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 加工過程을 담당하는 것은 인체의 脾(脾主運化)이며 공급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인체의 심(心行血)이고 힘을 산출하는 과정을 맡고 있는 것은 폐(肺主氣)이다. 그러므로 심의 기기는 浮散으로 요약되고 폐의 기기는 升降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왜냐 하면 심폐의 작용은 인체의 곳곳에 미쳐야 하며 바로 그것이 외부로부터 물질을 도입한 본래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升降浮沈 또는 升降出入의 기기는 인체가 입체구조라는 특성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며 만일 가오리같이 평면구조를 갖는 것이라면 그의 기기는 桴산을 중심으로 설명될 것이다. 인체는 상하구조와 좌우대칭의 四方構造(중앙을 포함하여 五方)를 골고루 가지고 있으며 이 점이 또한 다른 형태를 갖는 微物들과 구분되는 점이다. 어쨌든 이러한 현상은 다시 시공간의 변화특성으로부터 발현되는 음양오행적 특성과 整合됨을 설명하는 내용근거이며 따라서 시공간(宇宙) 체계와 생명체는 그 본질상 一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說明할 수 있다.

(7) 본 논문의 전제

이상에서 類개념과 유비론, 歸類, 구조와 기능, 대상등에 대하여 여러가지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저자가 이 문제를 다루는 한 가장 기본적으로, 아니 본질적으

로 전제되는 것이 있다. 따라서 이 전제는 모든 사유의 출발이며 토대가 되고 이 전제가 없으면 한의학의 특성은 제거된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체를 포함하여 현상세계의 모든 변화는 오로지 一氣가 聚散游行하는 결과라는 명제이다. 즉 기가 처해 있는 구체적 위치와 모습에 따라 각기 명칭을 달리 하며(道家에서의 精氣神論과 의가에서의 정신기혈론) 상이한 작용을 발휘함으로써 器세계의 生生化化가 이루어진다고 본다(本氣位也). 이로부터 모든 존재와 功能間의 유기적 통일성 및 순환성, open system등의 토대가 확보될 수 있다.

유비론이 고대 중국에서도 이미 개연적 보증만을 확보할 수 밖에 없음이 지적되었 으면서도³³⁾ 주요한 논리직 방법으로 자리 잡았던 것은 서양에서와 달리 이러한 개념적 전제가 바탕에 깔려 있어 만물의 본체론적 동질성이 확보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왜냐 하면 그러한 사상체계가 '관련있는 유사성'을 성립시키는 토양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더 나아가 포괄학문으로서의 가능성을 갖게 하기도 하지 만³⁴⁾ 현 시대에도 그러한 적용방법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생략한다.

(8) 類器能理論을 제시함

저자는 이미 서론에서 밝혔듯이 현재의 類機能理論이 몇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시대가 요구하고 있

33) 『呂氏春秋』 「應同」에서 “類固不必可推知”라 하여 同類의 사물이라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유추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였다.

34) 董仲舒의 大一統思想이나 人身猶一國의 思想등이 그 예이다.

는 한의학의 명료한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으며 이의 연장선상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였다. 서론에서 들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詳論하였으므로 수정제시하고자 하는 類器能理論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용어를 정의하면 '類'란 類合, 類同, 類聚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만물이 관련있는 유사성(또는 논리적 상동성)끼리 모이고 群分하여 시공간적 특성의 편차에 따라 음양 또는 오행의 패턴으로 分類되며 인체의 생리도 구조물의 시공간적 속성에 비추어 음양오행이 交互運用되고 생명현상도 五種的 패턴을 발휘하고 있다는 함의를 지닌다. 즉 類는 현상세계에 존재하는 森羅萬象의 모든 생성과 변화들을 簡易하게 요약하는 세계관인 동시에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兩面性을 지니게 된다. 器는 구조를 의미하며 能은 그 구조가 발휘하는 기능을 의미하는데 이 기와 능은 상호 통일적이며 相卽的인 성격을 갖는다. 類와 기능간에는, 器能에 의해 類가 형성되고 類에 따라서 器能을 분석하는 상호관계가 성립한다. 기와 능은 형과 기, 체와 용, 물질과 작용, 器와 道 등으로도 표현할 수 있으며 체내의 공간분포인 五方 즉 오행의 歸類方式에 따라 五臟器能을 중심으로 체내 각 구조물들의 기능이 형성된다³⁵⁾. 器能的으로 분석하여 이해할 수 있는 인체는 의

부에 대하여 열려있는 체계로서 상호작용을 주고 받으면서도 체내적 動態平衡 즉 체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이 과정에서 器能系에 의한 外部六氣의 感受와 이의 同化調節作用이 일어난다.

우선 간단하게 간을 예로 들어보겠다. "간은 두 개의 布葉과 하나의 小葉으로 되어 있는데 나무껍질이 터진 모양과 같다. 잎들에는 각각 支絡과 經脈이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陽和之氣를 宣發하고 있다", "간은 왼쪽에 3엽, 오른쪽에 4엽이 있다", "간이 크면 위가 늘려서 목구멍이 늘리는 감이 있고" 등은 『東醫寶鑑』에서 인용한 간의 구조에 관한 내용들이다. 또 『동의생리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간의 기능은 肝主疎泄³⁶⁾과 肝藏血로 요약되며 藏血機能은 疏泄機能에 의해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p.265) 것으로 보아 결국 핵심개념은 主疏泄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疏泄과 藏血의 기능은 木의 曲直과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바로 陰部位(地下)에서 잎을 띄워 發生시키는 구조적 특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생물학 지식에 의하면 나무의 잎은 '태양광선을 흡수하는 단위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기이자 에너지 변환기'이다. 또한 잎은 바람이 불면 잘 흔들리며 밑에서 위로 불면 잎은 곧 뒤집혀버리는 동시에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다. 또 잎은 뿌리로부터 줄기를 거쳐 수분을 퍼뜨리는 곳이며 광합성

35) 사실은 이와 함께 인체의 입체구조와 대칭성의 문제를 생물의 진화와 관련시켜 보는 것도 대단히 흥미가 있으며, 이것과 음양의 3단계(立體對稱性) 또는 3차원(氣之多少) 분화에 의해 성립되는 三陰三陽體系와의 상호관계를 추구해 나갈 수도 있다(장부경락체계).

36) 저자는 개인적으로 肝主疎泄이란 개념을 喜用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疏泄이란 의미가 본래 土가 疏泄되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그것은 木氣가 條達되어야만 이루어지는 機轉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疏泄은 어디까지나 升發과 條達에 附隨되는 개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을 위해 수분을 담고 있는 곳이다. 이것이 바로 至陰의 곳에서 기혈을 升發疏泄시키는 구조와 관계있다 함이며 大怒傷肝하면 兩脇脹痛하고 심하면 脇이 뒤집히면서 氣의 升降을 막아 薄厥하게 되는 것이다. 또 현재 해부학에서의 간을 예로 들더라도, 간은 대장과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여 상하 mesen-tery vein을 통하여 올려보내진 피를 portal vein에서 받아 저장, 가공하여 에너지를 만들고(각종의 營養物質代謝) 심장을 통하여 전신으로 분포시키는 중간과정을 담당하는데 이것은 흡사 대장과 소장이란 土에 뿌리박고 있는 나무줄기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 “膽은 색이 검고 形은 매어달린 박과 같으며 肝의 短葉 사이에 붙어 있다. 무게는 2兩 3銖이고 精汁 3홉을 담고 있으며 출입구가 없다”(『醫學入門』), “간의 餘氣가 넘쳐 담으로 들어간 다음 그것이 모여서 精을 이룬다”(『脈訣』) 등이 담의 구조에 관한 原典의 내용이다. 여기서 보면 담 또한 구조와 기능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肝과 膽은 表裏關係이면서 同氣(『醫學入門』, 『臟腑總論』)가 된다(즉 夫婦이면서 兄弟). 왜냐 하면 간은 謀慮를 주하는데 담이 간의 여기를 받아 정즙을 저장하고 있으면서 決斷을 출하는 것은 곧 모려의 결과이며 간과 거의 來源이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과 담은 畝하여 勇敢을 출하며 虛하면 그 病症이 恐하고 實하면 怒하게 된다. 그러나 담의 담즙배설이나 決斷도 결국 기의 鬱滯를 막아 간의 疏泄을 보충하는 동시에 완성하는 것이므로 간의 系로서 歸類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筋은 해부학적인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고 지적된 만큼(『동의생리학』 p.267) 그 판단이 쉽지 않지만 개념의 범

주는 잡을 수 있다. “肝主身之筋膜”(『素問』, 『痿論』)이라 하고 “骨爲幹 筋爲剛 肉爲牆”(『靈樞』, 『經脈』)이라 하였으며 “諸筋者皆屬於節”(『素問』, 『五臟生成』)이라 하여 筋은 관절에 붙어 있고, 骨보다는 위이고 肌肉보다는 아래에 있으며, 골격을 유지하고 屈伸력을 일으키는 구조물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핵심개념은 木과 筋의 상관성이다. 木이 曲直하듯이(곡직의 본래 의미는 나무를 바퀴통처럼 구부려서 쓸 수도 있고 바퀴살처럼 곧게 쓸 수도 있다는 의미임) 筋이 굴신하고 목이 剛하듯이 筋도 剛하며 肉이란 糞담장을 제거한 열개가 바로 筋骨인 것이다. 節도 屈伸作用에 의해 肝木에 귀속되는데 이로써 보면 肝-膽-筋-節등이 간을 중심으로 관련된 器能系³⁷⁾를 구성함을 알 수 있다.

이제 目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순서이지만 眼은 감각기의 하나로서 독특한 지위와 역할을 갖고 있다. 四象醫學에서도 제시된 바 있지만 耳目口鼻의 본질과 그 계통에 대해서는 한방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觀相學, 心理學등에서의 비중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매우 중요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肝器能系에 있어서의 目은 간이 膈下의 陰暗處에서 脫殼發生하여 條達舒暢하고, 日出時(春)에 어둠을 벗

37) 여기서의 계를 체계 즉 system으로 곧바로 등식화시켜서는 곤란하다. 『內經』多學科研究』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인체시스템은 각 하위체계(subsystem)들로 層次構造를 이루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서로 다른 층차를 갖는 하위체계간의 상관관계는 그만큼 적고 간접적일 수 밖에 없으나 한의학에서의 계통간에는 그 관계가 매우 유연하며(soft) 때로는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는 점이 이해되어야 한다.

어나 처음으로 태양의 밝음을 얻어 사물을 分揀(萬物布散)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눈의 기능인 점과 관계된다(『醫學入門』에서는 肝主色이라 하였는데 이 색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目擘). 그러나 눈이 분간하는 밝음 그 자체는 明亮한 것으로 心과 관계되며 나아가 시각인식행위로부터 모든 사물과의 관계가 정립되고, 체내 각 장부 조직의 변화는 곧 눈에 영향을 미치므로 눈은 五臟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간과 目的 유비구조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눈의 개별적인 기능과 구조에 대한 해석은 간과의 관련 뿐만 아니라 더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타장부도 설명이 가능하다.

이상이 간략한 이론의 獨型인데 본 논문에서는 이정도로 그치고 다음에 상술할 기회를 갖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이론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기존의 다른 이론체계를 실제에 맞게 성공적으로 설명해야만 본 이론의 체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지만 이것은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여기서 그치고자 한다.

III. 결 론

이상에서 저자는 類機能理論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類개념 및 유비논증의 문제, 구조와 기능의 문제, 생명현상의 일반화등을 논의하면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은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類機能理論은 전식론이나 五系機能論과 유사한 점도 인정되나 본질적인 내용에

서는 전혀 다른 것으로 사료되었다.

2. 상응이론과 관계된 서양의 자연과학적 이론으로는 적응이론, 유질동상(isomorphism)이론, 가이아 이론등을 들 수 있었으며 차이점도 찾을 수 있었다.

3. 한의학에서 類를 형성하는 원인으로 는 시간과 공간 및 萬物本具之情과 隨時取義之屬을 들 수 있었는데 시간과 공간요인에는 음양과 오행의 互含性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었다.

4. 유비추리과정을 논리학적으로 검토하면서 類機能理論에 의하여 歸類를 시행함에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해야만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았다.

5. 생명현상의 일반화를 통하여 五臟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활동패턴은 凡生物界에서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는 생명현상의 본질적 속성으로부터 연역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類機能理論은 類器能理論으로 바꿈으로써 기능위주의 생리학을 形氣并重體系의 생리학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아울러 본 논문은 보다 구체적인 이론의 적용을 포함한 세밀한 논의가 요구된다 하겠다.

IV. 참고문헌

1. 광강제 역; 웨즈리 새먼 저. 『논리학』. 서울: 박영사, 1988.
2. 김용운, 김용국 공저. 『동양의 과학과 사상』. 서울: 일지사, 1984.
3. 김준민, 임양재 편저. 『생물학사전』. 창원사, 1989.

4. 김한규 외2인 공역; 페어뱅크 외2인 공저. 『동양문화사』. 을유문화사, 1991.
5. 대한동의생리학회 편. 『동의생리학』. 서울: 경희대출판국, 1993.
6. 원병오 외6인 공저. 『생물과학』. 서울: 형설출판사, 1992.
7. 조규송 외3인 편역; 오덤 저. 『생태학』. 서울: 형설출판사, 1994.
8. 조용일 저. 『일반논리학』. 서울: 동성사, 1988.
9.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 『철학대사전』. 서울: 도서출판동녘, 1989.
10. 허준. 『동의보감』. 서울: 남산당, 1969.
11. 홍욱희 역; 러브록 저. 『가이아』. 서울: 범양사, 1990.
12. 張穎濤. 『生物全息療法』. 山東: 山東大學出版社, 1987.
13. 傅季重 主編. 『哲學大辭典』 「邏輯學卷」. 上海辭書, 1986.
14. 李烈炎. 『時空學說史』. 湖北人民, 1988.
15. 『계간과학사상』 제4호. 서울: 범양사, 1992년 겨울.